곰·호랑이와 사랑에 빠진 유통업계

연말 '단군신화' 마케팅 활발

유통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유통업계는 연말·연시 특수를 겨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에는 곰과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제품이나 이벤트를 내놓는, 일명 '단군신화' 마케팅이 활발하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 영향
롯데백화점, 올림픽 엠블럼 기획상품 판매
'위 베어 베어스' 각종 컬래버레이션 활발

▲MLB 플라워 타이거 맨투맨 티셔츠

▲SNP 아이스 베어 마스크

◀잇츠스킨 타이거 시카 톤업 쿠션

▲미샤 위 베어 베어스 에디션

연말·연시 특수를 겨냥해 곰과 호랑이를 모티브로 '단군신화' 마케팅이 활발하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획 상품을 판매하며, 마스코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내세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단군신화'란 수식어는 원래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각각 호랑이와 곰이 마스코트인 KIA와 두산이 맞붙으면서 등장했다. 현재 다양한 마케팅과 사업이 진행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도 마침 호랑이와 곰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래동화 및 만화를 통해 자주 접하다 보니 호랑이와 곰은 타 캐릭터에 비해 소비자에게 익숙하다"라며 "캐릭터 상품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곰과 호랑이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개발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 평창올림픽 총괄 라이선스 사업권자인 롯데백화점은 평창공식스토어를 통해 평창올림픽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활용한 인형, 머그컵, 텀블러, 티셔츠, 에코백 등 기획 상품을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트리 등 점포별 매장 내·외부를 평창올림픽 콘셉트로 꾸몄다.

뷰티·패션업계도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리며 나섰다. 곰 삼형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위 베어 베어스'와의 다양한 협업이 대표적이다. 이랜드스파오는 전면과 소매 끝에 캐릭터를 자수 포인트로 디자인한 '스파오×위베어베어스'를 내놓았다. 뷰티업체 미샤의 '위 베어 베어스 에디션'은 기존 '수퍼아쿠아 미스트', '리얼 모이스트 24 핸드크림', '허브 인 누드 시트마스크' 제품에 위 베어 베어스 캐릭터를 넣었다. 이밖에도 SNP화장품은 마스크팩 시트의 뺨 부분에 귀여운 곰 모양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 베어 마스크'를 선보였다.

호랑이 캐릭터로는 뷰티업체 잇츠스킨이 호랑이 얼굴을 뚜껑에 그린 '타이거 시카 톤업 쿠션'을 내놓았다. '호랑이풀'이라 불리는 병풀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 또 패션업체 MLB는 '디트로이트 타이거 컬렉션' 일환으로 앞면에 커다란 호랑이 문양을 포인트로 넣은 '플라워 타이거 맨투맨 티셔츠'로 눈길을 끌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G80스포츠·스팅어 등 6종, 美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제네시스 출범 이후 3년 연속 수상

자동차

제네시스·현대·기아차는 G80스포츠, 콘셉트카 GV80, 쏘나타 뉴 라이즈(현지명 2018쏘나타), 스팅어, 니로, 리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6개 차종이 미국 디자인상 '2017 굿디자인 어워드'(2017 Good Design Award)에서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6개 차종이 '2017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쏘나타뉴라이즈, G80스포츠, 스팅어(왼쪽부터). 사진제공 |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출범한 첫 해인 2015년 EQ900(현지명 G90)가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쿠페형 콘셉트카 비전G가, 올해는 G80스포츠와 수소연료전지 SUV 콘셉트카 GV80가 상을 받아 3년 연속으로 벤틀리, 페라리 등 세계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대차는 신차급으로 과감하게 디자인 변화를 준 쏘나타 뉴 라이즈(현지명 2018쏘나타)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기아차는 스팅어와 니로, 리오 등 주요 양산 모델 3종이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동시에 수상했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으로 전자, 운송, 가구, 컴퓨터 등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각 부문별 수상작을 매년 발표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제네시스를 비롯해 현대·기아차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차량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브랜드만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품질과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추가 지분 확보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CJ대한통운은 플랜트 및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이번 개편으로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 CJ건설의 핵심역량을 결합, 글로벌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해외시장에 진출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점별로 차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설·증설이 가능해졌다.

원성열 기자

매일유업, 매일우유 2% 핑크퐁 에디션 출시

매일유업은 인기 유아교육 캐릭터 핑크퐁을 활용한 '매일우유 2% 핑크퐁 에디션'을 출시했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기 높은 캐릭터 '핑크퐁'을 만든 국내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에디션이다. 무균화 공정을 거친 테트라팩 포장으로 상온에서 영양성분의 변화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 200mL 용량으로 휴대도 간편하다. 매일유업은 출시를 기념해 1월14일까지 모바일 매일아이에서 '핑크퐁을 찾아라' 즉석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비비안, 미혼모 위한 임부용 속옷 지원

속옷 브랜드 비비안이 한국미혼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미혼모에게 임부용 속옷 '마터니티'를 지원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 계층을 위한 속옷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기존 사업의 영역을 넓혀 출산 전후에 전문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임산부와 아이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비비안 측은 "편견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혼모에게 전문 속옷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9일

코스피지수	2478.53	↓	-3.35
코스닥지수	766.18	↓	-4.32
日 닛케이 지수	2만2868.00	↓	-33.77
中 상하이 종합	3296.54	↑	+28.6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0	↑	+0.01
환율 (원 · 달러)	1085.00	↓	-3.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076.14	↑	+103.97

오늘의 얼굴

이완신 사장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사진)이 19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과 비교해 올해 고용인원이 약 27%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여성고용비율도 55%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무 관련 이슈가 전무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완신 대표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매주 수·금요일 30분씩 일찍 퇴근하는 '홈데이',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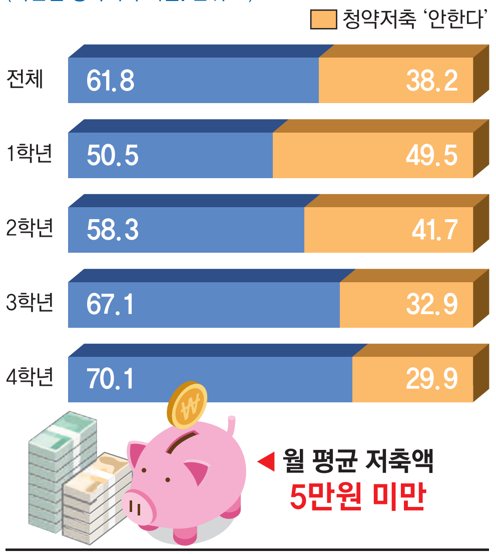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소프트웨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소프트웨어산업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9일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 **"금융감독 3대 혁신과 조직개편이 취임 100일 전에 이뤄져 기쁘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19일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향후 10년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서)

데이터 경제

대학생 5명 중 3명 "청약저축 한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61.8%가 현재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학년 50.5% ▲2학년 58.3% ▲3학년 67.1% ▲4학년 70.1%가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청약저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 등 가족이 가입해줘서 시작했다"(52.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스로 알아보고 저축을 시작했다"는 답변은 43.0%를 기록했다. 이들이 청약저축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평균 20.6세였다. 한 달 평균 저축액은 '5만원 미만'(44.1%)이 가장 많았다.



편집 | 이수진 기자